

# 한국의 사드배치와 러시아의 반응에 대한 고찰



김 인 성 (배재대학교)  
(feuille06@korea.ac.kr)

## 국문요약

미국의 사드체계를 한반도에 배치한다는 소식이 전해진 이후, 2014년부터 러시아는 사드배치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명해 왔다. 이와 관련하여 몇 가지 고려할 점이 있다. 첫째, 러시아는 한반도 사드배치를 미국의 전세계적인 차원의 MD 구축의 일환으로 파악하고 있다. 이는 2016년 루마니아에 지상기반의 미사일방어체계가 실전 배치되었기 때문이다. 둘째, 푸틴 등장 이후, 미국과 러시아 간의 갈등의 확대는 양자간 불신을 키워왔으며, 동북아 지역에서의 미국의 군사력 강화에 대한 러시아의 반응에는 유럽에서의 갈등이 투영될 수 밖에 없다. 셋째, 한반도의 사드 배치에 대한 러시아의 대응책은 중국과 북한 등 주변국들과의 협력관계의 강화를 통해 이루어질 것이다. 넷째, 러시아가 북핵문제에 대한 급격한 태도 변화를 보이지는 않을 것이다. 이는 러시아가 추구하고 있는 시베리아-극동 개발 정책과 동아시아 국가들과의 경제협력 관계 강화라는 대외정책 목표의 달성을 위해서는 한국과 일본의 협조가 절대적으로 중요하기 때문이다.

주제어 : 사드, 미사일방어체계, 러시아, 미국, 북한

# I. 서론

2016년 2월 7일 한국과 미국이 주한미군의 사드(THAAD: Terminal High Altitude Area Defense) 배치에 대한 공식협상 개시를 전격 발표하면서 사드의 필요성, 효율성, 주변국과의 관계 등에 대한 찬반 격론이 진행되고 있다. 한미 양국은 “사드체계가 한반도에 배치되면 북한에 대해서만 운용될 것(한겨레신문 2016/02/10)”<sup>1)</sup>이라고 밝힌 바 있지만 논란은 사그라지지 않고 있다. 한국군이 미국의 MD체계(Missile Defense System) 도입을 고려한다는 사실이 알려진 2013년 10월 이후 한국의 국방부장관은 “분명히 MD에 가입하지 않고 독자적으로 KAMD(Korea Air and Missile Defense)를 구축할 것(연합뉴스 2013/10/16)”이라고 천명하였으며, 이후 한국정부의 고위급인사들의 공식적인 입장으로 반복적으로 언급되었기 때문에 2016년 2월의 사드배치 공식 논의는 국민들과 주변 국가들에게 상당한 당혹감을 안겨주고 있다.

한국에의 사드 배치에 대한 공식 논의가 이루어지고 구체적인 배치장소에 대한 논란이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2016년 5월 12일 유럽에서는 미국의 MD 시스템이 루마니아에 최초로 배치되었다. 스톨텐베르그 나토 총장은 이번에 설치된 미사일 방어 시스템이 러시아의 핵억지력을 파괴하거나 약화시키려는 것이 아니라 그저 방어용일 뿐이라고 언급하였으나, 러시아는 이를 러시아의 핵억지력에 위협을 주고 전략적 균형을 파괴하려는 것이라며 반발하고 있다(Browne 2016).<sup>2)</sup>

오바마 정부 초기 체코와 폴란드 등에 MD 시스템을 구축하려는 이유는 이란의 탄도미사일로부터 유럽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었다. 그러나 2015년 7월 14일 13년 동안 진행되어온 이란 핵협상이 타결되었고, 논리적으로 유럽의 MD 배치의 필요성도 사라졌다. 이와 관련하여 푸틴은 불편한 심기를 감추지 않고, 다음과 같이 항의한다. “우리는 미국인들에게 협력과 공동작업을 제안하였으나, 거절당하였다. 우리에게 제안하는 것은 작업이 아니라 주어진 주제에 대한 단순한 대화이다. 구체적인 것은 없고, 우리의 우려사항에 대한 고려 없이 모든 일은 일방적으로 진행되고 있다. .... 불과 몇 년전만 해도 우리의 경쟁자들은 한 목소리로 MD가 유럽에 필요한 이유는 이란으로부터의 핵미사일 위협을 물리치기 위해서라고 말하였다. 현재 이란의 어디에 핵위협이 존재하는가? 핵위협은 사라졌다. 위협은 없지만 미사일방어체계의 구축은 계속되고 있다.”(LENTA 2016/05/13).<sup>3)</sup>

1) 출처: <http://www.hani.co.kr/arti/politics/defense/729782.html> (검색일: 2016. 07. 21.).

2) 출처: <http://edition.cnn.com/2016/05/11/politics/nato-missile-defense-romania-poland/> (검색일: 2016. 07. 19.).

3) 출처: <https://lenta.ru/news/2016/05/13/putinpro/> (검색일: 2016. 07. 20.)



유럽에서의 MD배치에 대한 러시아의 반응은 한국에서의 사드 배치에서도 유사하게 표명되고 있다. 2014년 5월 미국의 고위 군관계자들이 사드의 한반도 배치를 기정사실화하며 미국의 MD체계와 한국의 KAMD의 상호 운영성을 갖춰 북한의 미사일에 대한 방어능력을 높여야 한다고 주장에 대해 한국정부가 모호한 입장을 표명하

던 시기인 2014년 9월 『로시스카야 가제타』와의 인터뷰에서 익명의 러시아정부 관리자는 다음과 같이 말했다. “한국의 대통령을 포함하여 한국의 파트너들은 여러 차례에 걸쳐 우리(러시아)에게 말하기를 미국의 MD체계에 가입하지 않을 것이라고 이야기했다. 2012년 한러 정상회담을 포함하여 다양한 회담에서 이 문제에 대해 이야기해 왔다. 한국인들은 한반도에 미국의 미사일방어체계를 배치하는 데 협조하지 않겠다고 맹세하듯이 우리를 설득해왔다. 그런데 지금 진행되고 있는 일을 보라. 이 약속들과 맹세들은 모두 잊혀졌고 우리에게 깊은 유감만 불러일으키고 있다.”(Кириянов 2016).<sup>4)</sup>

한국의 사드배치가 북한핵미사일에 대한 방어용이라는 한미당국의 발표에 대해 중국과 러시아는 쉽사리 동의를 표명하지 않고 있다. 다양한 이슈들로 복잡하게 얽혀있는 동북아의 국제질서를 고려할 때, 현재 최대의 현안문제로 떠오른 사드배치에 대해 주변 국가들이 어떠한 입장을 지니고 있는 지에 대해 파악하고 대응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본고에서는 유럽에서의 MD체계 배치에 연이은 한국에서의 사드체계 배치에 대해서 러시아의 언론과 전문가들, 그리고 러시아의 외교부와 대통령이 어떠한 반응과 입장을 보이고 있는 지에 대해 알아보고자 한다.

## Ⅱ. 한국의 사드 배치에 대한 러시아 언론과 전문가의 반응

### 1. 러시아 안보의 위협 요인

한국에의 사드 배치에 대해서 러시아의 각계 인사들이 공통적으로 지적하는 바는 사드가

4) 출처: <https://rg.ru/2016/07/10/kompleksami-pro-thaad-v-iuzhnoj-koree-budut-upravliat-amerikancy.html> (검색일: 2016. 07. 21.).

러시아의 안보에 위협요인이 되고 있다는 점이다. 그런데 이에 대한 의견의 온도차이가 있다. 군사 분야의 전문가들은 대체적으로 사드체계가 러시아에 직접적인 위협요인은 아니지만, 레이더의 감시능력으로 인해 러시아가 이를 용인해서는 안 되며, 장래에 한반도 사드 체계가 보다 현대화될 경우 러시아에 대한 직접적인 안보위협요인이 될 수도 있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 한편, 러시아 외교부의 관리들은 사드 체계가 유럽의 MD체계와 함께 미국이 전세계적 차원의 미사일방어시스템을 건설하려는 전략의 일환으로 이는 전략적 균형을 파괴하기 때문에 절대로 용인할 수 없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

첫째, 직접적이고 실질적인 위협요인은 아니지만, 사드체계의 레이더 감시능력으로 인한 정치안보적 긴장을 야기하고 있다는 주장은 예비역 대령이자 러시아연방 국방산업위원회 자문위원인 빅토르 무라호프스키의 언론 인터뷰(Полунин 2016)<sup>5)</sup>에서 찾을 수 있다. 그에 따르면 “염두에 두어야 할 것은 미국인들 스스로가 말하는 것처럼 사드체계는 ‘전역방어 체계’<sup>6)</sup>라는 점”이다. 즉 전세계적인 미사일방어체계가 아니라 지역적 전장을 위한 체계이기 때문에 능력은 상당히 제한적이며 기껏해야 중거리 미사일 정도를 방어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그는 사드체계의 탐지능력이 미국인들로 하여금 지평선 너머까지 살펴볼 수 있도록 한다는 점을 지적한다. 사드 레이더는 1,200킬로미터까지는 확실히 목표 식별이 가능하며, 조건이 좋다면 1,500킬로미터까지 가능하다. 북한이 중국과 러시아와 직접 국경을 접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미국인들은 러시아영토의 일부와 중국 영토의 상당부분을 들여다볼 수 있다. 게다가 레이더는 탄도미사일 뿐만 아니라 항공기까지 식별할 능력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사드체계의 설치는 중국과 러시아를 긴장시키고 있다고 그는 주장한다.

무라호프스키는 다른 언론과의 인터뷰에서도 유사한 견해를 표명한다(Балтачева 2016).<sup>7)</sup> 그에 따르면, “사드 체계는 한 개의 미사일, 기껏해야 2~3개의 미사일을 요격할 수 있으며, 복수의 대규모 미사일 공격을 막아낼 수는 없다.” 즉, 한반도에서의 사드 배치가 러시아의 핵전략에 큰 위협요인은 아니라는 것이다. 그러나 그는 러시아에 사드 배치가 위협요인이 될 수 있는 데 이는 사드가 미국의 전략미사일방어체계의 하나이기 때문이다. 더 나아가서 장래에 사드체계가 보다 현대화되면서 대륙간탄도미사일 방어용이 될 가능성에 높다는 점에도 주목한다. 전체적으로 무라호프스키는 사드가 군사적 용도보다는 정치적 용도로서의 가치가 더 크다고 판단한다. “내 생각으로는 사드 배치는 군사적 관점에서보다는 미국에 대한 한국과 일본 정부의 지지를 드러내고 있다는 점에서 안보정치적인 의미가

5) 출처: <http://svpressa.ru/war21/article/152203/> (검색일: 2016. 07. 20.).

6) 러시아어로는 Театральная Система, 영문으로는 TMD(Theater Missile Defense)임.

7) 출처: <http://vz.ru/world/2016/7/8/820385.html> (검색일: 2016. 7. 28.).



더 크다. 미국이 군사안보적 우선순위를 아시아-태평양 지역으로 이전시켰다는 점은 비밀이 아니다.”

한편 위와 같은 주장은 이미 2014년에도 등장한 바 있었다. 2014년 『로시스카야 가제타』의 한 기사(Кириянов 2014)<sup>8)</sup>에 따르면 남한이 미국의 MD체계에 편입할 가능성에 대해서 군사전문가인 블라디미르 흐루스탈레프는 다음과 같이 말한 바 있다. “현재로서는 정치

적인 차원에서만 대응할 수 있다. 강조하고 싶은 바는 이 시스템이 러시아연방에 실제적인 위협이 되지는 않는다는 점이다. 실질적인 문제는 함선에 설치된 미사일방어체계이다. 그러나 새로운 세대의 요격미사일이 등장하게 된다면 이 위협은 현실적이 될 것이고 구체적인 대응책이 마련되어야 한다. 다른 한편으로는 러시아와 중국에 위협이 되는 것은 한국에 설치하게 될 미국의 미사일방어체계가 단거리가 아닌 중거리를 지향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 경우 방어체계가 요격하게 될 목표물의 수준이 한층 높아진다. 러시아는 미사일 강국으로서 이러한 경향을 무시할 수 없다.”

둘째, 한국영토의 사드 배치로 인해 동북아 및 국제적인 전략적 균형이 파괴될 수 있다는 주장으로 이는 외교부를 포함한 러시아 정부의 공식적인 입장이다.

2014년 『로시스카야 가제타』와의 인터뷰(Кириянов 2014)에서 익명을 요구하는 러시아 정부 관리의 한국이 미국 미사일방어체계에 합류하는 것에 대해 분명한 불쾌감을 표시하면서 러시아가 남한의 미국 사드체계 도입에 반대하는 것은 미국이 사실상 자신의 목적에 맞게 중국과 러시아에 대한 ‘방어선’을 형성하려고 하기 때문이다. 악명 높은 북한 위협을 들고 나오는 것은 구실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그는 한국정부가 이러한 사실을 매우 잘 이해하고 있으면서도 이리저리한 핑계를 대면서 미국의 결정을 따르기로 한 것에 대해 불쾌감을 표시하면서 미국의 미사일방어체계에 대한 한국의 참여는 정반대의 결과를 낳을 것이라고 이야기한다. 이 결정은 한반도의 안정성을 높이지 않으며, 역내 군비경쟁을 초래하면서 오히려 불안정을 야기할 것이라고 경고한다.

한국정부의 사드배치와 관련하여 러시아는 여러 차례에 걸쳐 북한의 핵무기 위협을 핑계로 남한에 미국의 미사일방어체계를 설치하는 것에 절대로 반대한다는 견해를 표명해

8) 출처: <https://rg.ru/2014/09/03/south-korea.html> (검색일: 2016. 07. 19.).

왔다. 한국 주재 러시아 대사 알렉산드르 티모닌은 러시아에게 있어 남한에 사드체계를 설치하는 것은 절대로 받아들일 수 없는 데, 이는 러시아의 안보에 직접적인 위협이 되기 때문이며, 남한에 미사일방어체계를 설치하는 것이 이 지역의 상황을 안정화시키지 않을 것이라는 주장한 바 있다. 이와 더불어 사드 배치는 이 지역에서의 러시아의 외교정책에 반영될 것이며, 사드체계의 배치는 러시아와의 관계개선에 도움이 되지 않고 한국 외교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경고성 발언을 하기도 하였다(Полунин 2016; EurAsia Daily 2016/07/11).<sup>9)</sup>

한편, 한국정부의 사드배치 결정에 대해 2016년 7월 초 러시아 외교부는 성명을 통해 매우 심각한 우려를 표명한 바 있다. 이 성명에 따르면 미국은 유럽의 MD체계 배치에 이어 동북아시아에 사드를 배치함으로써 일방적으로 미국에 유리한 세계 전략 구상을 현실화하면서 전체적인 전략적 균형을 깨뜨리고 있다는 것이다. 성명서는 다음과 같이 이야기 한다. “미국은 전략상 유럽에 지상 미사일 요격시스템을 설치하려 하고 있는데 이제는 동북아에 설치하려 하고 있음이 밝혀졌다. .... 미국과 한국의 합의는 러시아 측과 여타 정부들의 완강하면서도 결의에 찬 반대를 무시한 것이다. .... 미국은 동맹국들과 함께 전세계 차원의 미사일방어시스템을 아태 지역으로 확대하려하고 있으며, 이는 아시아 태평양 지역과 이 지역을 넘어서 형성되어있는 전략적 균형을 깨뜨리게 될 것이다.”<sup>10)</sup>(ВЗГЛЯД 2016/06/08) 러시아 외교부는 한반도에서의 사드배치로 인해 전세계적 차원의 전략적 균형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동북아 지역의 긴장상태가 더욱 악화되고, 비핵화를 포함한 한반도의 복잡한 문제들의 해결이 더욱 어렵게 될 것이고, 이로 인해 극도의 위험한 결과를 낳을 것이라는 경고를 담고 있다(REGNUM 2016/07/08).<sup>11)</sup>

## 2. 북한미사일 방어용이 아닌 미국의 전략적 이익을 위한 사드 배치

한국과 미국 당국은 한반도에서의 사드 배치가 북한의 핵미사일에 대한 방어용이라는 점을 지속적으로 강조하면서 러시아나 중국의 우려를 불식시키고자 하고 있다. 그러나 전반적으로 러시아의 군사전문가나 정부 관료들은 이러한 주장을 전적으로 반박하고

9) 출처: <http://svpressa.ru/war21/article/152203/> (검색일: 2016. 07. 20.); 출처: <https://eadaily.com/ru/news/2016/07/11/reshenie-o-razmeshchenii-thaad-prinyato-ssha-vtyagivayut-yuzhnyu-koreyu-v-novuyu-holodnyu-voynu> (검색일: 2016. 07. 21.).

10) Балтачева, Марина, 2016. “Россия ответит на развертывание ПРО США в Южной Корее” ВЗГЛЯД, 2016/06/08. 출처: <http://vz.ru/world/2016/7/8/820385.html> (검색일: 2016. 7. 28.).

11) 출처: <https://regnum.ru/news/polit/2154973.html> (검색일: 2016. 07. 21.).

있다. 일반적으로 이러한 주장은 미국의 세계전략과 아시아전략의 변화와 관련되어 있는데, 일부 러시아 군사전문가들은 한반도의 사드체계가 한국군이 아닌 미군에 의해 운용되고 있다는 점을 근거로 제시하고 있다.

극동지역 러시아아카데미 한국연구센터의 선임연구원인 콘스탄틴 아스몰로프는 언론에 의 기고문(Асмолов 2016)<sup>12)</sup>을 통해 러시아가 사드를 비판하는 이유는 이 시스템이 사실은 지역 안전을 위한 것이 아니라 한국과 일본 그리고 괌의 미군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기 때문이라고 주장한다. 한국에는 중거리 미사일 방어 수단이 이미 존재하고 단거리와 중거리 미사일 요격을 위한 다층적 방어체계가 한국에 어느 정도 필요한 지는 논의의 여지가 많지만, 사실에 있어 사드는 중국의 미사일을 요격하기 위한 것이라고 지적한다. 왜냐하면 미국을 향해 발사한 북한 미사일의 추정 궤도와 중국 미사일의 궤도가 상당부분 겹치기 때문이다. 이런 식으로 미국은 중국 미사일의 90%까지를 무력화시키고 대규모 분쟁시에 중국의 2차 공격능력을 제거하고자 한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또 다른 논거로서 아스몰로프는 미국이 사드체계를 운용하는 주체라는 점에서 사드체계는 미국의 세계전략구상과 연결되어 있다는 견해를 표명한다. 10억-20억 달러에 달하는 사드부대운용비용은 미국이 담당하고, 한국은 부대가 사용한 토지를 제공하는데, 토지 매입 후 주한 미군 부대에 넘겨주게 된다. 이렇게 되면 사드는 미국 영토에 설치되게 되며, 바로 미군이 이 시스템을 어떤 방향으로 어떻게 이용할 지를 결정하게 된다. 바로 이 때문에 사드 체계가 북한 미사일에 대한 방어를 위해서가 아니라 중국과 러시아에 대한 '지구적 봉쇄와 포위'를 위한 미국의 전략틀에서 나온 것이라는 의혹이 깊어진다고 그는 지적한다.

2016년 7월에 『로시스카야 가제타』에 기고한 한 기사(Кирьянов 2016)에서 동북아 전문기자인 올레그 키리야노프 역시 이와 같은 점에 대해 지적한다. 그에 따르면 문제는 사드체계의 주인이 사실상 미국이라는 점에 있다. 만일 한국군이 직접 사드체계를 운용하고 요격명령을 내린다면 러시아와 중국은 한국의 미사일방어체계가 북한의 탄도미사일을 겨냥한 것이라는 주장에 대해 반론을 제기하기 힘들 것이다. 그러나 미국이 사드체계를 어떻게 이용할지를 직접 결정할 수 있다. 이러한 점에서 사드의 감시대상은 오직 북한뿐이라는 한국과 미국정부의 주장은 설득력이 떨어진다. 먼저 고려할 점은 사드 체계의 레이더는 북한 미사일의 요격을 위해 이용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중국과 러시아 극동 지역의 상당부분을 스캔할 수 있다는 사실이다. 이렇게 될 경우 사드 레이더는 미국의 전지구적 MD체계의 틀 속에서 작동하게 되며, 이는 중국과 러시아가 부정적인 입장을 취할 수밖에 없는 이유 중 하나이다. 미국과 중국, 러시아 사이에는 높은 수준의 상호간 불신과 갈등

12) 출처: [http://ru.journal-neo.org/2016/07/14/thaad-resheno/](http://ru.journal-neo.org/2016/07/14/thaad-reshen/) (검색일: 2016. 07. 20.).

등의 모순이 현존한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러시아와 중국은 사드체계가 중국과 러시아의 미사일 체계를 겨냥하는 것이라고 받아들일 수밖에 없으며, '북한 위협'은 사드의 한국 배치를 위한 구실에 불과하게 된다.



## THAAD SYSTEM



### 3. 러시아의 대응방안 제시

한반도에의 사드배치 결정에 대해 러시아의 군사전문가들과 정부 고위급 인사들이 대응방안으로 제시하는 것은 ① 러중간 공동대응 방안 마련, ② 북러간 관계 개선, ③ 극동 지역에 새로운 미사일방어기지 건설 등이다.

첫째, 러중간 협력관계의 강화와 공동대응 방안 모색을 통해 한반도 사드 배치에 대응하고 더 나아가서는 상하이협력기구 국가들까지 포함하는 미사일방어체계를 갖추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2016년 7월 독립국가연합 소속 기관의 부위원장이자 군사전문가인 블라디미르 에브세예프는 미국 사드체계의 한국 배치로 인해 러시아와 중국이 공동으로 미사일방어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고 말한다. 러시아는 사드배치에 대해 지속적으로 반대해왔으나, 미국은 북한의 위협으로 인해 배치는 불가피하다고 주장해왔다. 이 경우 사드체계의 탐지능력으로 인해 미국은 러시아와 중국의 영토를 상당히 깊숙한 곳까지 감시할 수 있게 된다. 바로

이 때문에 러시아와 중국은 MD체계에 대응하고자 자신들의 능력을 결합할 수도 있다. 그는 2016년 5월에 모스크바에서 최초로 러중 공동으로 컴퓨터 모델링에 기반한 미사일방어 훈련을 시행한 바 있고, 이것이 공동 미사일방어시스템 조성을 위한 계획의 첫 단계라고 말한다. 다음 단계는 탄도미사일에 대한 실제 공동 요격 훈련이 될 것이며, 더 나아가서는 상하이 협력기구 참여 국가들을 위한 공동미사일방어체계를 건설하는 데 노력할 것이라고 이야기한다. (Тимошенская 2016).<sup>13)</sup>

둘째는 미국과 북한과의 관계가 악화되고 있는 현 시점이 러시아와 북한 간의 관계 개선의 시점이며, 이는 러시아에 이익이 될 수 있다는 견해이다. 2016년 러시아 일간지와 인터뷰(Полунин 2016)에서 모스크바국립국제관계대학교(МГИМО)의 수석연구원 미하일 알렉산드로프는 남한의 사드체계 배치는 러시아의 안보에 직접적인 위협이 되지 않는다는 견해를 밝힌다. 한반도 사드 배치는 오히려 미국에 대한 정치안보적 계임을 진행함에 있어 흥미로운 가능성을 제시하고 있는데, 이는 사드체계가 북한미사일보다는 중국의 미사일에 대한 견제수단이고 이로 인해 러시아는 중국과의 협력체제를 갖추고 북한과의 관계를 개선할 수 있는 기회를 맞이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의 말에 따르면 사드체계는 북한미사일의 요격능력을 갖추고 있을 수 있다. 그러나 훨씬 더 중요한 사실은 미국의 군사기지나 대만으로 발사된 중국의 ‘등평 21’ 미사일을 요격할 수 있다는 점이다. 말하자면 남한의 사드 배치의 진짜 목적은 중국의 중거리 미사일에 대한 견제인 것이다. 1988년 체결된 미소 중거리핵전력협정(INF)에 따라 러시아에는 중거리 전략 미사일이 존재하지 않는다. 다른 한편, 러시아의 ‘이스칸데르(Искандер)’급 미사일은 사드 같은 종류의 미사일방어체계를 어려움 없이 뚫을 수 있다.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러시아는 미국의 사드체계가 남한에 설치된다하더라도 잃을 것이 별로 없다는 사실이다.

이러한 기회를 맞이하여 러시아는 중국의 요격미사일 배치를 도와야하며, 북한도 지원하여야 한다는 것이 알렉산드로프의 의견이다. 소련의 초대대통령 미하일 고르바초프 시절부터 러시아는 북한에 대해 강경한 태도를 유지하고 있으며, 유엔의 북한제재에도 참여하여 왔으나 이제는 이러한 노선에서 벗어나야 한다. 북한이 군사력을 강화하는 이유는 미국이 북한의 안전보장을 통해 갈등을 해결하는 대신 동북아 지역에 군사력을 증대시키고 있기 때문이다. 이런 상황에서는 북한과의 군사협력을 재개하여야 하는데, 왜냐하면 사드배치로 인해 이 지역에서의 군사적 균형이 무너질 수 있기 때문이다.

세 번째는 러시아 극동지역에 미사일방어기지를 구축하여 한반도 사드체계에 마찬가지로 한국과 일본을 감시하여야 한다는 주장이다. 러시아 상원 국방위원회 수석부위원장은

---

13) 출처: <http://riafan.ru/538815-rossiya-i-kitai-gotovyat-otvet-amerikanskoi-zrk-thaad-v-yuzhnoikoree> (검색일: 2016. 07. 19.).

에브게니 세레브레니코프에 따르면 러시아는 러시아 동부에 한국에 설치되는 사드와 동일한 범위를 감지할 수 있는 레이더를 장착한 미사일 방어 부대를 설치할 수도 있다(ВЗГЛЯД 2016/08/04).<sup>14)</sup> 그의 견해에 따르면 “우리(러시아)는 미국의 미사일방어체계의 한국 배치에 대한 결정을 러시아의 군사 계획에 반영할 것이다.” 그는 러시아연방 국방부와 공동으로 동부지역에서의 방어체계 강화에 대해 논의할 것이라면서, 이 문제에 대해 전문가들이 필요한 결정을 내리기 위한 준비를 하고 있다고 이야기한다(REGNUM 2016/07/08).<sup>15)</sup>

### Ⅲ. 러시아 외교부와 대통령의 공식적 의견

러시아의 중요한 정책방향과 관련된 문건들 이를테면, 외교정책개념이나 군사독트린 국가안보개념 등에서는 한반도 문제에 대하여 구체적인 내용이 없다. 한반도의 핵문제나 안보문제에 대해서도 원칙적 차원의 수준을 넘어서서 러시아의 최고위층의 입장이 표명되는 경우도 별로 없다. 러시아의 대통령이나 총리가 유럽의 MD배치 문제 혹은 우크라이나 사태와 같은 안보문제와 관련하여 신랄한 언어를 구사하면서 비판을 하는 것과는 상당히 대조적이다. 이는 러시아에게 동북아의 국제관계가 복잡한 양상을 띠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한반도 사드배치와 관련하여 러시아 언론과 전문가들은 다양한 의견을 표명하고 있다. 러시아 정부의 의견은 주한 러시아 대사가 원칙적 수준에서 러시아정부의 공식적 입장을 표명했을 뿐이며, 그 외에는 익명을 요구하는 외교부 관리나 국회의원, 기타 국제기구의 전문가들의 견해들이 주를 이룬다. 이 문제에 대해서 구체적인 외교부의 공식적 입장이나 러시아 최고위인사의 견해는 두 차례 발표되었다. 하나는 2016년 7월 개최된 제4차 “러중 간 동북아안보 대화”에 대한 러시아 외교부의 논평이며, 다른 하나는 2016년 6월말 러중 정상회담 성명서이다. 이 두 건의 발표문의 전문은 동북아의 안보문제 뿐만 아니라 국제관계까지 포괄하는 장문의 문건이다. 아래에서는 사드배치를 포함한 한반도 문제에 대한 외교부 발표와 러중정상회담 성명서의 내용을 소개하고, 러시아 정부의 공식적인 입장에 대해 알아보려고 한다.

14) 출처: ВЗГЛЯД. 2016/08/04. <http://vz.ru/news/2016/8/4/825074.html> (검색일: 2016. 08. 05.).

15) 출처: [https://regnum.ru/news/polit/2154973.html?utm\\_source=rnews](https://regnum.ru/news/polit/2154973.html?utm_source=rnews) (검색일: 2016. 07. 23.).

## 1. 러중 대화 4차 라운드에 대한 러시아연방 외교부 논평

미국과 한국의 사드배치에 대한 합의는 러시아와 중국의 전략적 안보에 심각한 손실을 입힐 수 있다는 것이 러시아연방 외교부의 견해이다. 이와 관련하여 동북아 안보를 위한 러중 대화 4차 라운드의 결과에 대해 러시아연방 외교부는 다음과 같이 발표하였다(Новости Армении 2016/07/29).<sup>16)</sup> “미국의 미사일방어체계 사드의 남한 배치에 대해 한미가 합의한 것은 양국 모두에 심각한 우려사항이라는 점이 표명되었다. 이제는 동북아에까지 전략적 미사일방어 수단을 일방적으로 전개하고 있는 미국의 행보는 국제적이고 지역적인 전략 균형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점에 대해서도 거론되었다. 러시아와 중국 양측은 미국과 한국의 이와 같은 행위가 그들이 발표한 목적과 일치하지 않으며 러시아와 중국을 포함한 인근 국가의 전략적 안전에 심각한 손실을 입힐 수 있고, 한반도 상황을 보다 더 악화시킬 수 있다. 회담 참가국들은 이러한 계획에 단연코 반대하며 상황의 전개에 따른 새로운 바람직하지 못한 현실에 대해 양국의 협력을 강화할 수 있는 가능성에 대해 논의하였다. 양국이 강조하는 바는 한반도 핵문제는 평화로운 정치외교적 수단들을 통해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는 데 있다. 이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6자회담이 최적의 유일한 형태라는 데 이해를 같이 하였다. 한반도 비핵화의 필수조건은 대규모 군사훈련의 감소와 이해관계당사국들 사이의 신뢰 분위기의 형성 등을 포함한 군사정치적 긴장의 해소에 있다. 양국은 남북 양측 간 화해의 달성을 위한 유일한 방안인 다자간회담의 조속한 재개를 요구한다. 회담 참가국들은 역내 전략적 안정과 평화와 안보영역에서의 러시아와 중국의 국가이익 보호를 위해 지속적인 중러대화가 중요하다는 점을 확신한다.”

## 2. 러중 정상회담 공동선언문(2016. 6. 24)

2016년 6월 러시아연방 대통령 푸틴은 중국을 방문하여 경제와 외교 문제 등의 다양한 부문에 대해 논의하고 24일 공동성명(Совместное заявление Российской Федерации и Китайской Народной Республики)을 발표하였다. 양국간 경제협력 문제가 매우 비중있게 다루어졌으며, 외교안보 현안에 대해서도 공동의 입장이 피력되었다. 공동성명 중에서 북핵문제 및 사드 배치와 관련한 내용의 전문<sup>17)</sup>은 아래와 같다.

16) 출처: <http://news.am/rus/news/339564.html> (검색일: 2016. 08. 05.).

17) Совместное заявление Российской Федерации и Китайской Народной Республики 25 июня 2016 года. 출처: <http://www.kremlin.ru/supplement/5100> (검색일: 2016. 7. 21)

러시아와 중국은 조선인민민주주의공화국이 평화적인 원자력과 우주개발 등을 포함하여 적극적이고 건설적인 국제사회의 일원으로서 성공적으로 발전하고 번영하는 국가가 되기를 바란다. 또한 양국은 한반도 비핵화를 변함없이 지지하며 북한의 미사일과 핵전략을 수용하지 않는다. 이는 조선인민민주주의공화국의 평화로운 원자력개발과 우주개발에 대한 주권의 실질적 구현은 오직 유엔안보리의 요구가 전적으로 실행된 이후에나 가능하기 때문이다.

러시아와 중국은 한반도 문제의 해결은 오직 정치-외교적인 방법으로만 해결되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한다. 양국은 군사적 우위의 달성만을 통하여 안보를 보장받으려는 시도는 비생산적이라는 점을 모든 당사국들이 인지하기를 바란다. 모든 이해당사국들은 대화와 협의를 통해 문제를 해결하여야 하며, 2005년 9월 19일의 6자회담 공동성명과 이와 관련한 유엔안보리의 결정을 전적으로 이행하여야 하고, 6자회담의 신속한 재개를 위해 노력하여야 할 뿐 아니라, 한반도 비핵화를 진행시키고 한반도의 긴장상태 해소에 노력하고 이 지역의 평화와 안전을 보장하여야 한다.

러시아와 중국은 동북아에 역외국가 군사력의 확대를 반대하며, 조선인민민주주의공화국의 핵과 미사일 프로그램에 대한 대응을 구실로 미국이 전역미사일방어시스템을 태평양 지역에 설치하려는 것과 같은 새로운 MD 기지의 배치에 반대한다. 양국은 역내에 정치군사적 갈등과 군비경쟁의 확대를 수용하지 않는다.

러시아와 중국은 동북아 국가들이 이 지역의 군사-정치적인 긴장 완화와 군사행동수준의 약화, 양자관계의 정상화, 상호호혜적인 협력관계의 발전을 위한 구체적인 작업을 시작할 것을 요청한다. 이를 통하여 동북아 평화와 안정을 위한 조건을 조성하고, 차별없는 평등에 기초하여 상호 신뢰와 안전을 위한 다자간 기구들을 건설하여야 한다.

## IV. 결 론

미국의 사드체계를 한반도에 배치한다는 소식이 전해진 이후, 2014년부터 러시아는 사드배치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명해 왔다. 사드 배치가 공식화된 2016년 현재 시점에서 러시아와 중국은 공히 반대를 표명하고 있지만, 러시아보다는 중국이 훨씬 더 강도 높은 반대 의견을 표명하고 있다. 러시아가 한반도의 사드를 중국보다 덜 위협적이라고 느낄 수 있는 동북아 지정학적 환경이 하나의 요인이지만, 러시아는 국제적으로 중국보다 훨씬 더 복잡한 안보환경을 가지고 있다는 점이 러시아의 관심을 분산시키는 측면도 존재한다.

한반도에서의 사드 배치에 대한 러시아의 인식과 반응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이와 관련하여

러시아가 당면해 있는 몇 가지 상황을 먼저 고려하여야 할 것으로 보인다. 첫째, 러시아는 한반도 사드배치를 미국의 전세계적인 차원의 MD 구축의 일환으로 파악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처해있다. 2016년 루마니아에 지상기반의 미사일방어체계가 실전 배치되기까지 10여 년 동안 미국은 체코와 폴란드에 MD 기지를 설치하려고 시도해왔고, 이 과정에서 러시아의 입장을 일부 반영하여 기지 설치를 중단하거나, 이지스함 기반의 미사일방어시스템 설치를 고려하기도 했고, 이란 핵문제의 해결 이후에는 MD시스템이 필요 없을 것이라는 발언을 오바마 대통령이 하기도 했다. 루마니아에의 MD 지상기지 설치에 러시아의 의견에 대한 일말의 고려없는 미국의 일방적인 러시아 포위정책으로 비쳐질 수 있으며, 이러한 인식은 한반도의 사드배치에도 그대로 투영되고 있다고 보인다.

둘째, 구소련 말기와 몰락 이후 미러(미소) 관계가 최고조에 달한 이후 1990년대 중반부터 양자간 관계는 서서히 냉각되기 시작하면서 푸틴 등장 이후에는 신냉전체제의 등장이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관계가 악화되어 왔다. 특히 구소련국가들을 둘러싸고 벌어지고 있는 미러간의 각축은 이 지역에서 크고 작은 분쟁을 야기해 왔으며, 2008년 러시아의 조지아 침공과 남오세티아공화국 및 압하지야 공화국의 독립선언은 러시아와 서구국가들과의 관계를 급격하게 냉각시키는 계기가 되었다. 여기에 더하여 2014년 크림공화국이 우크라이나로부터 독립을 선언하고, 러시아연방에 편입됨으로써 이 지역을 둘러싼 분쟁이 지속되고 있으며, 러시아와 미국이 각각 양측을 지원함에 따라 분쟁은 일종의 대리전 형태를 띠고 있다. 미국 주도의 러시아에 대한 경제제재와 러시아 국경 인근 지역에서의 나토군의 확대 등은 크림공화국 문제를 둘러싼 갈등을 더욱 깊게 하고 있다. 미국과 러시아 간의 갈등의 확대는 양자간 불신을 키워왔으며, 동북아 지역에서의 미국의 군사력 강화에 대한 러시아의 반응에는 유럽에서의 갈등이 투영될 수 밖에 없다.

셋째, 한반도의 사드 배치에 대한 러시아의 대응책은 주변국들과의 협력관계의 강화를 통해 이루어질 것으로 보이는데, 여기에는 고려할 사항이 있다. 미국을 위시한 서구 국가들과의 갈등으로 인해 러시아는 유럽과 동북아에 동시적으로 군사력을 확충해야 한다. 여기에 더해 러시아는 중동 문제에도 지속적으로 관여하고 있다. 미국과 나토가 유럽 지역의 미사일방어체계를 강화하는 한편, 러시아를 겨냥한 군사력을 확충하고 있는 한편, '아시아로의 회귀' 정책을 통해 아시아에서도 유사한 군사력 증강이 지속되고 있다. 러시아의 경제적인 어려움을 고려할 때, 미국이 추구하고 있는 전략적 균형의 변경에 단독으로 대응하기는 어렵다. 이 때문에 중국과의 군사적 관계의 강화 그리고 북한과의 관계 개선 등을 통해 사드에 대한 공동 대응을 할 수 밖에 없으며, 상하이 협력기구 및 기타 러시아와 우호 관계에 있는 국가들에 대한 미사일방어체계 구축 지원 등을 비롯한 군사 협력 관계 강화에 나설 수밖에 없다.

넷째, 러시아의 많은 전문가들은 한반도에서의 사드배치가 지금 당장에는 러시아에

직접적인 군사적 위협이 되지는 않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이는 한국에 배치될 미국의 사드체계가 종말단계에서 작동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이다. 즉 미국 본토나 다른 지역을 겨냥하고 있는 러시아의 장거리 탄도 미사일을 요격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러시아의 전략 미사일 공격능력의 무력화로 인해 전략적 균형이 붕괴되고, 미국 등의 잠재적 적국의 공격에 노출되는 사태가 사드 배치 이후 즉각적으로 발생하지는 않을 것이다. 그러나 러시아 정부는 한반도의 사드 체계가 미군의 독자적인 판단에 따라 운용되며 극동지역 상공을 감시할 능력을 갖추고 있고, 시스템의 현대화가 이루어질 경우 그 탐지범위가 크게 확장될 수 있다는 점에서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고 있다.

다섯째, 러시아가 중국이나 북한과의 관계개선과 협력증진을 통해 한반도 사드배치에 대응할 것으로 보이기는 하지만, 이로 인해 북핵문제에 대한 급격한 태도 변화가 있을 것으로 판단하기는 어렵다. 한반도 비핵화와 다자간 협상을 통한 한반도 문제의 해결이라는 러시아의 대한반도 정책 기조가 바뀔 가능성은 별로 없다. 이는 러시아가 추구하고 있는 시베리아-극동 개발 정책과 동아시아 국가들과의 경제협력 관계 강화라는 대외정책 목표의 달성을 위해서는 한국과 일본의 협조가 절대적으로 중요하기 때문이다. 다만 동북아에 대한 러시아의 정책은 상당히 장기적인 관점에서 인내심을 가지고 추진되고 있는데, 한국이나 미국의 대북정책이나 동북아정책이 러시아정부로 하여금 선택할 수 있는 정책상의 여지를 주지 않을 경우 러북관계의 급격한 개선과 대북지원의 확대를 통해 영향력을 행사할 가능성이 있다.



- Browne, Ryan. 2016. U.S. launches long-awaited European missile defense shield. CNN(12 May).
- Асмолов, Константин. 2016. ТНААД: решено!. Новое Восточное Обозрение (14 Jul).
- Балтачева, Марина. 2016. Россия ответит на развертывание ПРО США в Южной Корее. ВЗГЛЯД (8 June).
- Кирьянов, Олег. 2014. Сеул подписался под ПРО. Российская газета. № 6472(04 Sept).
- Кирьянов, Олег. 2016. Комплексами ПРО ТНААД в Корее будут управлять американцы”. Российская газета(10 Jul).
- Полунин, Андрей. 2016. США обходят Россию с фланга:Зачем в Южной Корее размещают американскую ПРО? СвободнаяПресса(8 June).
- Тимошенская, Катерина. 2016. Россия и Китай готовят ответ американской ЗРК ТНААД в Южной Корее. Федеральное Агенство Новостей(20 Jul).
  
- CNN
- EurAsia Daily
- LENTA
- REGNUM
- ВЗГЛЯД
- Новое Восточное Обозрение
- Новости Армении
- Российская газета
- СвободнаяПресса
- Федеральное Агенство Новостей
- 러시아대통령 공식 홈페이지 <http://www.kremlin.ru>
- 연합뉴스
- 한겨레신문

● 투고일: 2016. 8. 13.    ● 심사일: 2016. 8. 13.    ● 게재확정일: 2016. 8. 22.

## **Russians' Response to the Deployment of THAAD on the Korean Peninsula**

Kim, Inseung  
(Pai Chai University)

Since the United States and Korean Governments decided the deployment of the THAAD system on the Korean Peninsula, Russia has expressed deep concern about the THAAD. In this regard, there are some points to consider. First, Russia considers the deployment of the THAAD system on the Korean peninsula as a part of the US global MD system, because the ground-based missile defense system has been already deployed in Romania. Second, since the first inauguration of president Putin, the conflict between the US and Russia has increased, which has exacerbated distrust between the two governments. The conflict in the Europe has an impact on Russia's reaction to the strengthening of the US forces in the North-eastern Asia. Third, Russia's response to the deployment of THAAD on the Korean peninsula will be led to the strengthening of partnerships with neighboring countries, including China and North Korea. Forth, Russia will not immediately change her attitude on the north Korean nuclear issue. Because Russia needs cooperation with Korea and Japan in order to achieve policy objectives concerning the development of the Far East region.

〈Key words〉 THAAD, missile defense system, Russia, United States, North Korea